

특 집

(稀秘性) 低 Na 혈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혈액 관문간의 수분을 혈관내로 유출시키므로 뇌압항진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노소제제도 효능은 적으므로 임상적으로 잘 사용 안되고 있다. 이노가 잘되면 Na 나 수분의 배설이 많아지므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므로 이점 유의하고 조절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적합한 수액을 잘 선택하는 것이 부작용을 방지할수 있으며 그러자면 수시로 검사하여 환자체내의 부족되는 수액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원자=서울 東山病院 내과과장〉

이런일 저런일

이상한 지명(地名)

태국의 수도 『방콕』의 공식 명칭은 Krungt'ep이다. 신성한 사도(使徒)의 도읍이란 뜻이다. 그러나 1782년, 이 도시가 창설될때의 이름은 빠리어(語로 158자의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krungetpmahanakornbowornratanakosinmahintarayudhayamahadilokponoparatanarajthanibvriromudomrajnivesmahasatarnamornpimarmavatarsatitsakatattiyavisañukamprasit.

또 가장 짧은 지명을 가진 곳은 블란서 손부 지방의 인구 143명의 마을인데, 이름은 『Y』.

뉴웨이에도 『A』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는데 발음은 『아우』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절대 삼가야

구충제



関 弘 基

전혀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이상적인 구충제라면 기생충에 대해서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인체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으나 아직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제는 없으며 구충제마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욱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확진이나 적절한 처방없이 막연하고도 무계획한 약제의 사용, 독성이 강한 약제의 병합사용 또는 올바른 구충효과와 판정없이 임의로 약제를 입수 연용하는 경향이 상습화되어 있어 구충하더라도 도리어 자신의 건강을 저해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행을 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습관은 모름지기 지양되어야 하며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줄 안다.

구충제의 구조는 각양하며 그 작용기전도 상이하고 이로 인해 발현되는 중독정도도 차이가 있다. 적량투여에 구충제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하고 일과성이나 이의 오용 및 남용은 축적작용 내지는 중독작용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위험스러운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약당의 안정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투여방법도 경구 또는 주사등이 채택되고 있는 바 언제나 적응증에 따르는 적량 처방에 순응함이 부작용 예방의 지름길이며 가장 안전한 보호책이라 하겠다.

산도닌은 경련, 황시증 등의 부작용 있고

대체로 구충제는 그 약리적 작용기전에 의하여 ① 충제의 경련 및 마비작용, ② 원형질 파괴작용 및 ③ 대사억제와 저해작용등으로 대별되며 충제에 대한 이런 작용기전은 인체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들의 구충효과를 실상이라 하면 그 부작용은 언제나 뒤따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다.

상기한 구충제의 작용기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인체에의 부작용을 각

항별로 간단히 살펴 보려한다.

(1) 구충제의 대부분은 다세포성 생물인 '윤충류의 복잡다양한 체제중 신경계, 감각기관 및 운동기관에 작용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인체에서의 부작용은 신경계 자극증상으로 두통, 현훈, 권태감, 오심, 구토 및 오취감과 소화기계 증상으로 식욕부진, 복통, 설사등이다. 심할 경우 산도닌은 경련, 황시증 및 광달뇨증의 원인이 되고 드물게는 회충성 충수염이 유발되기도 한다. 『사염화(四鹽化)에칠렌』은 도한, 서맥 및 저혈압을 초래하는 순환기계의 허탈상태의, 면마산은 시신경망막염과 실명의 그리고 『헤노포디유(油)』는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간장, 신장 및 조혈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들의 기능검사와 아울러 혈액 및 뇨 검사등이 병행되기도 한다. 특수한 예로는 장운동의 항진과 경련이 유산물 야기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궤양과 장염을 일으키는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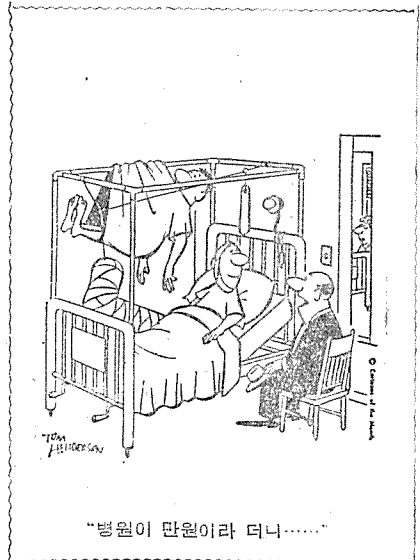
(2) Alkylresorcinol계 약제는 충제의 각질을 용해 침투하여 충체내 원형질을 파괴하는 작용이 있다. 이 계통의 1종인 hexylresorcinol은 구강과 위장점막의 미판 및 출혈과 심한 복통 및 설사의 원인이 되며 궤양형성후 2차적 장염을 일으키게 된다.

색소제는 오래도록 위장장애를

(3) 색소제 및 대부분의 원충 치료제는 호흡대사를 현저히 저해하는 작용이 있는데 인체의 소화기계에도 같은 작용을 하여 장애증상 및 중독증상이 장시간 지속되는 예가 허다하다. 본복 경우에도 약물의 축적작용으로 분복시의 부작용에 못지 않는 중독현상이 온다. 색소제인 gentian violet나 dithiazanine은 장관 자극증상을, chl-oroquin(레속신)은 소화기계증상과 정신증상을 일으켜 때로는 흥분과 섬망상태 혹은 심장장애와 혈압강하를 초래케 하며 atabrine(acrinil)은 안구와 피부의 황염현상을 그리고 plasmochin 및 camoquin 등은 민감한 환자에서 용혈성 빈혈, methemoglobin 혈증 및 백혈구감소증등을 유발케 한다. stibnal, faudin 및 토주석등은 주사로도 투여 가능하여 때로는 심한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며 후자는 위장 및 기관을 심하게 자극하여 폐염증상, 혼수상태 나아가서는 사망을 초래 (0.1%)하기도 한다. 비소계의 정맥주사로 맥관통은 물론 전신의 근육통과 관절통을, 때로는 주사부위의 괴사성, 병변 혹은 잔기능장애를 초래하며 『비친(비치오놀)』은 과민성반응으로 담마진을 이르기기도 한다. 원충류에 애용되는 염산 emetine 주사제는 전신성 점상출혈반과, 간장, 신

장 및 심장의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전신부종과 담백노를, 심하게는 심근경색을 일으켜 극히 위험한 상태까지 빠지게 된다. 사상충증 치료제인 hetrazanc(supatonin)은 소화기계 및 신경계 자극증상과 아울러 열발작 및 입과선종대를 유발하는데 이는 사멸충체의 항원성 물질의 흡수 및 면역반응의 결과라 본다. 끝으로 윤충류 유충의 폐순환시 나타나는 폐염증세에 저효를 보이는 『코티손』의 투여는 면역 및 염증성 세포반응의 억제를 초래하여 유충의 조직이행을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시켜 사당케 한 중례가 최근에 보고된 바 있다.

〈필자=이학의대 기생충학 교실〉



“병원이 만원이라 더니……”